

광주·전남 주요 사찰 '해님이·해맞이 템플스테이'

고즈넉한 山寺서 새해 첫 일출 맞는다

구례 화엄사 3박4일간
다도 체험 등 참선행사
송광사·해남 미항사 등도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



지난해 송광사 '새해맞이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시민들이 스님의 설법을 듣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들뜨기 쉬운 연말 조용한 산사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희망찬 새해를 맞는 것은 어떨까. 광주·전남 지역 주요 사찰에서 산사 체험 행사로 '2007년 해님이 2008년 해맞이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구례 화엄사는 오는 29일~1월 1일까지 3박 4일 동안 '노고단 해맞이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108 염주 꿸기' '다도체험' '소원등 만들기' 등 체험과 함께 참선도 배울 수 있다. 1월 1일에는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지리산 노고단을 등반한다. 또 1월 4일~8일까지 묵연수행을 병행한 참선 고급과정인 '겨울선수련회'도 준비했다.

순천 송광사는 조계산 대장봉을 등반한 뒤 새해맞이 법회를 갖고, 나주 심향사도 금성산에서 해님이 해맞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맞이 명소가 땅끝마을로 유명한 해남 미항사는 새해 걸기 명상, 자유정진, 스님과 의대화,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템플 스테이 마지막 날인 1월 1일에는 달마산에 오른다.

대부분 해가 뜨기 전 새벽 4~5시 사이에 산

을 오르는 경우 많기 때문에 추위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손전등, 방한복, 장갑, 등산복 등을 준비한다. 또 수건 및 세면도구, 침낭도 따로 챙겨야 한다. 대부분 사찰 안에서 생활하지만 출가 때문에 내복이나 두꺼운 옷을 따로 가져가도록 한다. 참가비는 3만 원.

한편 전주·부안·김천·서산 등 타지역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개최하는 사찰도 있다.

전주 참 좋은 우리 절은 내년 1월 5일~8일까지 '참 나를 찾아서'를 주제로 어린이 겨울 수련회 개최한다. 김천의 직지사도 내년 1월 7일~

12일까지 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다도·예절교육과 함께 고민 나누기 등 '4화 동안 거 어린이 산사체험'을 준비했다.

서산 부석사는 내년 1월 6일~12일까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총효영어로교실'을 연다. 이번 교실에서는 영어교육과 함께 부석사 인근 문화유적지를 탐방하고 칠채 탑도 함께 진행된다.

부산 범어사는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월 11일부터 2박3일동안 '겨울 템플 스테이'를 개최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새해맞이 템플 스테이

사찰명	일정	프로그램 내용
화엄사 061-783-7600 www.jhwaeomsa.org	12월 29일~1월 1일 1월 4일~8일	노고단 산행, 일출, 새해 대가로 쓰는 편지 작성수행 고급과정
송광사 061-755-0107~9 www.sanggwangsa.org	12월 31일~1월 1일	조계산 대장봉 해맞이 등반, 새해 맞이 법회 실시
심향사 061-334-2880 www.smyangsa.or.kr	12월 31일~1월 1일	금성산에서 해맞이 행사
미항사 061-533-3521 www.mihwangsang.com	12월 31일~1월 1일	참회정진, 스님과 대화, 새해 경기 명진, 달마산 등반
금성사 063-548-4441~2 www.geumsansa.org	12월 29일~30일	달맞이, 촛불의식, 다도 참선, 예불

불서로 본 스님의 일상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내년 2월 17일까지 '불서로 본 스님의 일상'을 주제로 특별전을 연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오랜 기간 존경받는 스님들의 수행과정과 일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모두 8부로 구성됐다. 1부 '산사의 하루'에서는 새벽 도량석을 시작으로 스님의 일상을 사진으로 보여준다. 2~7부까지는 출가 이후 스님의 삶, 마지막 8부 '무로로 돌아가다-입적, 대비와 부도, 탐미, 진영조성'에서는 스님으로서 삶을 마치는 모습을 담았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보법연화경 삼매잡법(보물 제1천519호)' 등 120점이 공개된다. 대홍사의 '선조대왕 하사염주'는 신본 밖으로 나와 처음으로 전시된다. 문의 062-570-7000.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우리는 태안으로 간다

광주·전남 종교단체 기름 제거 봉사 줄이어



지난 18일 신안교회 청년부 회원들이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해변에서 기름 제거 작업을 벌이는 모습. (신안교회 제공)

광주·전남 종교인들의 기도하는 두 손이 기름 때로 검게 변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태안군 일대에 이 지역 종교단체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신학대학교 대학원생 50명은 27일 오전 6시 태안 기름유출 사고 현장으로 떠났다. 이들은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해변에 도착해 태안군에서 제공한 방재복·마스크·고무 장화 등을 착용한 채 기름 방제 작업에 나섰다.

이번 자원봉사를 계획한 이상욱(38)씨는 "연말을 좀더 뜻깊게 보내고자 이번 일을 준비했다"면서 "해안가 기름제거는 일일이 닦아내는 방법밖에 없어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 북구 신안교회는 지난 18일에 이어 28일에도 태안군을 찾을 계획이다. 지난 18일 태안으로 봉사활동을 다녀 온 청년부 50명의 제안 때문이다. 28일에는 교회 장년부 포함해 90명의 신자들이 태안으로 가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들은 추위 속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과 주민들을 위해 컵라면과 커피 등을 준비해 현장을 찾을 계획이다.

백양사도 오는 2008년 1월 11일 1박 2일 동안 복구활동에 동참한다. 현재 스님 50명과 불자 50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꾸린 상태. 송광사도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면 기름 제거 작업을 위해 태안군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종교칼럼



이덕윤

참회는 값진 선물

그렇게 참아내고 용서하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의 인도인들은 '실례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등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할 때, '크샤마 키제'라고 말한다. 이 표현을 직역해 가깝게 옮기면 '너그럽게 참아서 행동해주시면 좋겠습니다'가 된다. 물론 이때 주안점은 죄를 고백하는 것보다는, 죄를 스스로 고백해 용서를 구한다는 것에 있다.

참회 즉 크샤마는 죄의 자각, 죄의 솔직한 고백,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죄에 대한 너그러운 용서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라 하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죄를 자각하지도 솔직하게 고백하지도 않는 상황이 진행되어 용서할 기회도 용서받을 기회도 놓치고 있다.

원불교의 대산 상사는 "수행인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여도 참회와 반성으로 물러나서 새로 출발하면 그때부터 깨끗하고 죄가 없어지는 것을 알려, 일반 사람들은 잘못을 이리저리 변명하다 결국에는 더욱 큰 죄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만다"고 했다.

이것이 어찌 국한된 몇몇의 문제이겠는가? 당신은 참회할 일이 있는 한 여론조사에 60%가 그렇다는 응답을 보였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참회를 하고 싶은가라는 물음에 부부사이(24%), 부모와 자녀(12%), 나(10%)를 꼽았다.

타인의 잘못을 가리키던 손가락을 내 스스로에게 돌릴 때,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참회가 나온다. 나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할 줄 아는 용기와 결단이 설 때, 주위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나는 행복할까?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인연들이 행복할까? 대립된 관계를 은혜로운 관계로 돌려 발전적으로 살려내는 길은, 우리 스스로의 더 늦지 않은 참회이며 용서일 것이다. 참회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주어진 참으로 값진 선물임에 틀림없다. (교무·원불교 소초교당)

노인 위한 사목프로그램 개발 시급

천주교 서울대교구 보고서

고령화 시대에 노인 신자들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사목프로그램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은 최근 발간한 '노인사목 실태와 욕구 조사' 보고서에서 "본당 사제들은 노인사목에 가장 중요한 분야는 '복지'(47.7%)라고 응답했다. /연뉴스

마지막 남은 신나무 고(古)목재로 만든 **죽서마루** 공장직판

다심마루는 소나무로만 제작하는 전통가구, 재현업체입니다.

방문: 062-385-9957

다심마루 (주)다심마루

☎ (062) 385-9957

www.dasimmaru.com